

새로운 교육 방식의 실험의 장으로서 대학원 강의

신동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부교수

우리 학교처럼 최고 학부로서 교육의 전통이 장구한 학교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명강의의 신화를 낳은 선배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이제 세상이 변한 탓일까, 개개인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거나 전화선을 통한 음성으로만 접촉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빠른 발전으로 굳이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를 고집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수업이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전설적인 교수의 강의록과 판서, 학생들의 부지런한 필기, 수업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지는 짧은 질문과 응답이 대학 강의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대학 내에서도 강의시간 중에는 전혀 접근이 차단된 강의록과 이를 참고한 교수의 판서, 그리고 학생들의 수동적인 강의에의 참석이라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강의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인간적인 체취를 느낄 수 있었던 과거의 명강의들을 더 이상 원래의 방식 그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경향 자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강의를 수행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목해두어야 할 일인 것 같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교육들은 그 특성상 대학 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직도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같은 방식의 강의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학부 강의를

보면 과거 수십 년 동안 대학 내에서 행해져왔던 전통적인 강의 방식의 특징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학부에 주로 남아 있는 전통적 강의 방식의 특징

- 구체적인 지식을 문자화된 형식으로만 전달 가능
- 정적인 정보 이외에는 전달하기가 쉽지 않음
- 학생들이 강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
- 강의시간에 시행된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쉽지 않음

이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개인간의 정보 교환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진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가장 후진적인 방식의 인간간의 의사 및 정보의 소통을 경험해야 하는 재미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사회와 대학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인 교수들로서는 최대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최근 개발되어 나오는 다양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의 방식을 강의 내용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현재의 대학 학부 교육은 적당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학부 강의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

-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하는 내용이 개설서 수준으로서 구체적

인 지식이 무리하게 전달되어질 필요는 없다. 학부생에게는 정확한 지식을 알기 쉽게, 넓은 범위의 지식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행되므로 강의 방식의 변경, 새로운 강의 내용의 추가가 용이하지 않으며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 추가적인 토론도 불가능한 경우가 보통이다

물론 아직 학부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보다 깊이 있는 강의를 수행해야 하는 대학원 강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소속된 의과대학 내에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교육을 시행하는 탓에 강의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연구에 바로 응용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상에서 구동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은 강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매체의 범위를 크게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다른 프로그램의 구동 없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상에서 음성, 영상, 도식화된 그림 설명, 텍스트 등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저장 공간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이곳에 설치된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보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까지 의과대학 내에는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소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대학원 강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강좌는 학부 강좌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학

부 강좌 개발에 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학부 교재의 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 자체로는 이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단계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주변의 발전이 빨라져버렸지만 나름대로 기존의 강의 방식으로는 충실한 강의가 어려운 대학원 강좌를 선정하여 2007년 개설을 목표로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다음에 기술할 내용들은 필자가 준비하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원 강의의 콘텐츠들로서 내년부터 실제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기술해가겠다

강의 제목

‘생물학적 인류학 연구의 최신지견’ (2007년 개설 예정)

기존 대학원 강의의 문제점

기존의 대부분의 대학원 교육에서는 교과서 혹은 논문을 교재로 사용하여 단순한 발제와 토론 위주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내 대학원에 개설될 체질인류학 관련 대학원 강좌의 경우 강좌의 특성상 동영상과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강의 방식을 탈피하여 본 대학원 강좌에서는 동영상 및 영상 화면 콘텐츠가 대학원 강의를 위하여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강좌 개발 방식, 동영상의 제작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 특성상 동영상 화면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강의에 사용될 오리지널 동영상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특히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영상 화면은 반드시 직접 제작되거나 일차적인 제작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만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강의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네트워크상에서 기동하는 교육 콘텐츠라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는 미묘하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강좌를 수강하게 될 학생들은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인간 유기물이 노출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은 직접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인골이 노출되는 과정을 미리 동영상으로 설명과 함께 본 다음 현장에 임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이 동영상을 수업시간과 수업 후에는 온라인상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강좌의 주제인 ‘생물학적 인류학 연구’는 자연과학적 실험 기법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연구 방식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 강좌를 수행하게 될 일부 인문학부 출신의 대학원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짧은 시간 내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개설적 정보의 제공에도 동영상은 사용되어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자연과학적 실험 기법의 ABC를 단시간 내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본 강좌를 위해서 확보된 동영상에는 최근 몇 년간 채록된 관련 학회에서의 특별 강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흔히 강좌명에 포함되듯이 ‘최신’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관련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대학원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바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의 내용은 전공 학자로서의 첫발을 디딘 대학원생들에게도 수업 내용의 형식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홈페이지의 확보

이 강의에서 중요한 점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만이 공식적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경우,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업시간에 강의된 자료들을 수업시간 이후에도 확보하고, 수업시간에서 다루지 못한 깊은 지식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수업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논문 기사 사이트의 링크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학생들 쪽에서도 정규 수업 이외에 이 사이트에서 추가 학습을 하는 것이 강의시간에 전달되는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식의 수업을 빨리 정착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강의 출석률과 정규 시험 점수로만 평가하던 대학원 학점의 평가 방식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의 활동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지도록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평가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e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는 자료실, 설문조사 등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치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도움을 받아 개발에 나선 대학원 강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100%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자인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정보가 축적되어 간다면 이 강료가 개설될 2007년에는 이 강의를 수강할 대학원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의 주입식 암기와 평면적 토론이라는 기존의 대학원 강의와는 다른 방식의 강의를 듣게 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우리 학교의 경우, 대학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대학원 교육이란 학부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전달되는 지식의 구체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학부 교육과는 질을 달리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대학원 교육이란, 사제간의 직접 대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대학원 강좌라는 다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공식적인 지식 전달의 장에서도 학부 교육과는 다른, 보다 구체적이고 수준 있는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 훨씬 다양한 강의 방식이 동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생각한다 학부 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학부 교육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딘 개선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하면, 대학원 교육은 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교육 기법의 동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학생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 요원이라면, 대학원 강좌의 개발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